

‘더위 먹은 화재경보기’ 오작동 소방력 낭비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파트나 대형건물 등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감지기)까지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아파트는 최근 경보기 오작동이 잇따라 아예 새 기기로 교체하는 일도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경보기나 무더운 여름철 높은 온도·습기·먼지 등이 경보기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기적 점검과 꼼꼼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7일 광주지역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관내 소방서에 접수된 화재 오인신고는 914건으로, 이 가운데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건수는 57건(6.2%)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화재 오인

오작동 경보음에 입주민 대피 소동 잇따라 광주 오인 신고 914건...주기적 관리해야

신고 1,316건 중, 경보기 오작동 출동 27건(2.1%)에 비해 30건이 늘어난 수치다.

소방당국의 이같은 수치는 경보기 작동시 상황실로 접수된 일반적 수치일 뿐, 실제로 더 많은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지난달 29일 오후 6시 40분께 동구 학동 모 아파트에선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입주민끼선 긴급히 밖으로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이 10여분 가까이 흘러 나와 입주민 4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파트 관리소측 확인 결과 지상에 있는 화재 감지기가 뜨거운 열

과 습기 등으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측은 소동 이후에도 경보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새 기기로 전면 교체했다.

또, 남구 노대동 모 아파트에선 지난 4일 화재 경보 사이렌 소리가 터져 나와 입주민들이 곤욕을 치렀고, 지난달 18일 오후 6시 50분께 동구 장동 전남대병원 주변의 한 건물에서 화재 발생 오인 신고로 소방차와 구급차 등 6대가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신고가 들어와 급히 출동했는데 소방시설 오작

동으로 드러나면 절로 힘이 빠진다”며 “철저한 화재경보기 관리와 민원성 신고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여름철 높은 온도와 습기가 경보기 오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 화재경보기에 전기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계절에 상관없이 평소 화재경보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먼지가 끼거나 낡은 경보기를 방치하는 것도 오작동 원인으로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화재경보기 작동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 펌프차와 물탱크차, 구급차, 고가사다리차 등이 동시에 출동한다.

그러나, 실제 불이 나지 않아 현장에서 기본 조치만 하고 돌아오는 헛걸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런 오인 출동은 고스란히 소방력 낭비로 이어져 정작 실제 상황에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게 일선 소방관들의 전언이다. 여기에, 화재 오인 신고와 일부 시민들의 막무가내 식 출동 요청도 소방력 낭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화재경보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만 오작동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화재경보기들이 건물 준공 직후 설치된 뒤 오랫동안 방치돼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 화재경보기에 전기적 문제 등이 발생해 경보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어 전문 업체에 주기적으로 점검 및 철저한 시설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광민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25~35	곡성	25~35
담양	26~35	구례	25~35
화순	25~35	완도	26~34
영광	26~34	강진	25~34
함평	27~35	장흥	25~34
무안	26~34	해남	25~34
영암	25~34	고흥	25~34
진도	26~34	보성	24~34
신안	26~34		

일출 05:46 일몰 19:29
월출 02:02 월몰 16:35

목포	27~34	여수	26~34
----	-------	----	-------

목포	만조 10:46 23:55 간조 04:30 16:35	여수	만조 06:04 18:59 간조 00:02 12:11
----	----------------------------------	----	----------------------------------

문의: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여고 성희롱 파문’ 수사 새학기까지

교사의 제자 성희롱·성추행 파문이 인 광주 한 여자고등학교에 대한 경찰수사가 새 학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피해진술 청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학생 한 명의 피해조서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전수 조사에서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학생이 180여명에 달하는 만큼 경찰이 개학 전 피해 학생 조사를 마치고 나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학교 고3 수험생은 오는 8월 방학이 끝난다.

경찰은 교육청 전수 조사 때 심각

한 수준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고3 학생만 따로 추려 8일까지는 해당 학생의 진술만 듣기로 했다.

나머지 고3 수험생과 1·2학년 학생에 대한 조사는 새 학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가해 교사 소환조사는 피해 학생 조사가 끝난 뒤 이뤄진다.

경찰은 피해조서를 토대로 가해 교사 범위를 정해 출석을 통보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 전체 교사는 57명(남자 39명·여자 18명)이다.

교육청이 수사 의뢰 대상으로 지목한 교사는 16명으로 전체 교원의 28%가량이다. /김종찬 기자



무더위 속 ‘조롱박’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어는 입추인 7일 광주·전남지역은 다소 흐린 날씨를 보인 가운데 조롱박, 수세미, 호박 등으로 터널을 이룬 함평군 월야면 달맞이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무더위속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김태규 기자

최악의 무더위...하룻동안 2명 숨져

벌초 간 70대·열사병 증세 80대 목숨 잃어

한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넘어서고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최악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체력이 약한 노약자들의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다양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7일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감시체계 따르면 올 여름 광주에서는 89명, 전남에서는 241명의 온열질환자

가 각각 발생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광주에서 1명, 전남에서는 4명이 발생했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사망자가 더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7일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9시께 보성군 벌교읍 야산

에서 A씨(74)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요양원에 거주하던 A씨는 6일 오후 3시께 부모님 산소에 벌초하러 나간다고 외출했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오전 7시 30분께 북구 우산동 주택 2층 거실에서 김 모씨(81·여)가 쓰러져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발견,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겼지만 지난 6일 결국 숨졌다.

담담 의사는 “김씨가 열사병 증상으로 뇌 신경이 손상돼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폭염도 계속 위세를 떨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를 보이겠다. 낮 최고기온은 34도에서 36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낮 12시부터 4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찬 기자

재활용업체서 중국인 노동자 숨져 분류장치 이물질 제거중 기기 작동

광주 한 재활용처리업체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숨졌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낮 12시55분께 광주 북구 모 재활용처리업체에서 ‘이물질 분리용 기계(일명 통돌이)’ 안에서 작업하고 있던 이 모씨(58·여)가 2.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씨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6시40분께 숨졌다. 이씨는 기계에 낀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을 하려던 중 통돌이에 휩쓸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료 A씨(56·여)가 재활용품 선별용 벨트와 연결된 이물질 분리용 기계 안에 들어간 이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작동 스위치를 누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종찬 기자

해남서 승용차 방파제 아래 추락 승승자 숨지고 운전자는 부상

바닷가를 달리던 승용차가 길을 벗어나 갯벌 바닥으로 떨어져 고령의 탑승자가 숨지고 운전자는 다쳤다.

7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7분께 해남군 황산면 한 어촌 선착장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방파제 아래 갯벌로 추락해 뒤집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운전자 나 모씨(69)와 동승자 지 모씨(70)를 차 밖으로 꺼내 병원으로 옮겼다.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지씨는 사고 2시간 뒤 병원에서 숨졌고, 운전자 나씨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이들은 인근 마을에 사는 이웃 사이로 알려졌다. /목포=김동균 기자

동명생명과학원(주) www.dmlabs.co.kr

아직도 서울·경기 등 장거리 분석을 의뢰하고 계십니까?
당일채품! 당일분석! 호남최대!

지역 내 분석기관으로서
고객님의 소중한 제품을 신속·정확·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석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식품·축산물 분석	먹는물 분석	환경측정 분석
자가품질 검사 참고용 검사 위생 검사 잔류농약 검사 HACCP 검사 유통기한 설정	먹는물 검사 먹는샘물 검사 지하수 검사 상수원수 검사 친환경인증 급수설비(저수조·급수관)	대기질 측정대행 수질 측정대행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수질환경 관리대행 대기환경 관리대행 측정기기 관리대행

식품시험실 광주 남구 대남대로 385(월산동) T.062.351.1005 F.062.351.1006
수질시험실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송로 127 T.061.870.7005 F.061.870.7006
환경시험실 광주 북구 중흥로 71(신인동) T.062.528.0064 F.062.529.0065

NAVER 드림꽃도매 검색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Ta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오피스텔
급매합니다**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전망좋음, 즉시 입주가
- 관리비 저렴, 사무실전용
- 2층, 38평, 9400만원
- 3층, 38평, 8400만원
- 7층, 53평, 1억1400만원
- 8층, 33평, 8400만원

문의. 010-6834-7400